

동일 공여자 사체 신이식에서 Mycophenolate Mofetil과 Azathioprine의 5년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외과*

백현정 · 허우성 · 여호명 · 김정아 · 김 범 · 김윤구 · 김대중 · 오하영 · 김성주*

목적 : 동일 뇌사 공여자로부터 신이식을 받은 2명의 환자를 Mycophenolate Mofetil (MMF)군과 Azathioprine (AZA)군으로 나누어 공여자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두 약제가 신이식 후의 급성 거부반응 및 장기 이식신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본 연구는 전향적, 개방형 임상시험으로 1998년 4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된 신이식 중 공여자 (34명)의 양측 신장이 제공된 사체 신이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 공여자로부터 신이식을 받은 2명의 환자를 각각 MMF군 (34명)과 AZA군 (34명)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였고 다른 면역억제제로 cyclosporine과 steroid를 각 군에 동일하게 투여하였다. 두 군간의 급성 거부반응의 발생 및 치료, 이식신 소실과 환자 소실, 5년 이식신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 및 만성 이식신 기능장애 등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MMF군과 AZA군 간에 나이 (47.5 ± 11.7 세, 40.2 ± 10.4 세, $p < 0.05$)를 제외하고는 성별, HLA 부적합 정도, 냉허혈시간, Panel reactive antibody, 기존 질환, 체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급성 거부반응은 MMF군에서 10명, AZA군에서 9명으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고, 만성 이식신 기능장애 (각각 2예, 3예) 및 합병증 등에 있어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년 이식신 생존율은 각각 91%와 87% ($p > 0.05$)이었고, 5년 환자 생존율은 94%와 95% ($p > 0.05$)이었다.

결론 : 동일 공여자 사체 신이식에서 MMF와 AZA군 간의 급성 거부반응 발생률 및 장기 이식신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사체 신이식에서 면역억제요법의 종류 외에도 공여자 인자가 이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체 신이식에서 임상 연구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공여자의 나이나 냉허혈시간 외에 뇌사자의 기존 질환, 뇌사의 원인, 이식 전까지의 의학적 사건 등 다른 공여자 인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